



NEWS LETTER



[한국음반산업협회 뉴스레터] ●●●
신규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신청 저작물에 대한 주의의식이 필요합니다.

2017. 09. 05. [제 220 호]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즐 수 있는 보물이다.

- 플로베르 -

공지사항

❑ “음반제작자” 여러분. 제작하신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하셨나요?

〈미분배 보상금 신청 안내〉

- 홈페이지(<http://www.riak.or.kr>)에 접속하셔서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등에 대한 지급현황을 확인하시고, 신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 드립니다.
- 아이디 및 패스워드 발급/확인 및 등록여부 문의 : 콘텐츠팀 김가인 사원(02-3270-5933)

❑ 분배 일정 안내

- 2017년 7월분 신탁사용료 분배 예정 : 2017년 9월 25일(월)
- 분배 관련 문의 : 신탁사용료(박지혜 사원, 02-3270-5962)
방송/다음송/공연보상금(우민선 사원, 02-3270-5963)

❑ 가요심의 접수

-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음반제작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심의(KBS) 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심의 접수 문의 : 박창현 차장, 김정수 사원(02-3270-5986~7)

❑ 한국음반산업협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최근 소식과 신보 및 컴필,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facebook) 주소 : <https://www.facebook.com/riakmusic>

❑ 협회 주요 소식

- 협회 홈페이지(www.riak.or.kr)에 방문하시면 협회의 주요 경영공시 사항 및 회원 로그인을 통한 분배금액(신탁/보상금)확인과 등록앨범조회 등 회원님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클리핑

- [단독] 카카오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품으로 이동 (2017. 8. 18. EBN)
- 디자인주스, '음악 AI 상황분석 맞춤형서비스' 개발, 10 월 서비스 개시 (2017. 8. 21. 전자신문)
- '권지용' USB 업데이트... 음반 논란 재점화 (2017. 8. 21. 한국일보)
- 저작권자 알 수 없는 저작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2017. 8. 22. 중기이코노미)
- 헬스클럽-카페도 음악 틀면 月 4000 원 저작권료 물린다는데... (2017. 8. 24. 동아일보)
- 노래 한 곡에 '억대' 연봉...나도 '벚꽃연금' 벌 수 있을까 (2017. 8. 24. 아시아경제)
- "AI 음악서비스 최다 음성명령어는 '신나는 음악'" (2017. 8. 25. 연합뉴스)
- 석유 탱크에서 음악이 흘러 나오네요 (2017. 8. 25. 조선일보)
- IT 업계 "동영상·음악 콘텐츠 잡아라" (2017. 8. 27. 스포츠월드)
- "샐리야, 영화 OST 틀어줘"... 음악 골라주고 날씨예보도 척척 (2017. 8. 28. 한국경제)
- 네이버-카카오, AI 다음 격전지는 '자동차' (2017. 8. 29. 뉴스웨이)
- 온스테이지 라이브,음악·미술 경계 허물다...31 일 온라인 생중계 (2017. 8. 29. 서울경제)
- 청소년 음악창작 지원공간 생긴다...한국판 '엘 시스템아' (2017. 8. 29. 연합뉴스)

보고서, 발간자료, 알림 기타 등

- 가상현실 콘텐츠 확보를 통한 국내 미디어 시장 선도 전략 (2017. 8. 29. KT 경제경영연구소 Digieco)

분리배출표시제도 관련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7월 01일부터 CD 케이스 등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반제작자에게도 분리배출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성수지포장재를 사용한 CD 케이스 및 포장 필름(바코드, 라벨 등이 부착된 경우에 한 함) 등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법률 위반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법률에 관하여 회원님들의 확인을 바라오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 바랍니다.

- 분리배출표시제도 : 한국환경공단 032-590-4205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분담금) : 한국환경공단 032-590-4199

“음반 표지” 이미지 및 서체 사용에 대한 안내

협회는 최근 신탁계약 및 보상등록 음반의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사진, 그림 등) 또는 서체(폰트)와 관련하여 해당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업체 또는 대리인(법무법인)]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수신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선스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원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디자인을 의뢰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여 음반의 표지를 제작할 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그에 따른 피해를 회원님들께서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점차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음반 표지에 사용되는 이미지 또는 서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음반 표지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사용중지(온라인의 경우 서비스 중지)와 함께 사용허락 받은 이미지, 서체 등이 사용된 음반 표지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업체가 허락받은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저작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음반 표지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o 관련문의 : 콘텐츠팀 3270-5936, 기획법무실 3270-5916

테이프 복각 음원의 서비스 관련 안내

회원님께서 과거에 테이프의 음원을 복각하여 MP3 음원 형태로 협회에 등록하여 주신 음원의 온라인 서비스 반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거 회원님께서 일부 테이프의 음원을 MP3 파일로 등록하여 주신 앨범 중, 테이프의 A 면· B 면에 있는 모든 곡을 하나의 MP3 파일로 전달해 주신 음원에 대하여, 테이프의 A 면· B 면의 곡을 트랙별로 구분하여 CD 또는 MP3 파일 형태로 복각하여 재등록 해주시면 온라인 사이트 (멜론, 지니, 엠넷, 소리바다, 벅스 등)에 재등록해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재등록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서는 CD 또는 MP3로 복각하시어 협회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콘텐츠팀 담당자 : 정정수(02-3270-5931), 하수정(02-3270-5936)

SAYHO 예술공유플랫폼 서비스 안내



[P2P 예술 공유 플랫폼 서비스 'SAYHO']

세이호(SAYHO)는 음악 공연, 음악 레슨, 포토, 비디오그래퍼,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고객들과 매칭시켜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공연을 필요로 하는 고객(개인/기업/프로모터)들과 뮤지션을 연결해주는 "뮤지션 공연 매칭" 서비스로서, 고객이 원하는 스페셜한 공연(프로젝트 공연, 행사 공연, 축하 공연, 축제 공연, 카페 공연, 버스킹 등)을 24 시간 내에 뮤지션과 매칭해드립니다.

세이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서비스 소개 및 이용방안을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이호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ayho.co.kr>

한국음반산업협회(RIAK) 신규 신탁음원



[싱어송라이터 최보통과 배우 이해주의 콜라보 '놀자']

일상에 지친 남자친구 소환, 놀자! Let's have fun!

감성어쿠스틱 인디뮤지션 최보통의 새로운 장르는 Tropical House다. 더운 여름 지친 커플들과 사람들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한다. Casey의 기타리스트 박상현의 편곡 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곡이다. Casey의 Tropical house 비트와 최보통의 멜로디가 만나면서 전에 볼수 없던 특이한 노래가 탄생했다.

솔직하고 담백한 내용이 매력적인 노래 가사는 보컬의 이해주씨가 직접 썼다고 한다. '놀자'는 최근 연극 '선수의 탄생'으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 이해주씨의 데뷔곡이기도 하다.



[싱어송라이터 '꽃지수', 'ZISU(지수)'로 귀환!]

싱어송라이터 ZISU의 귀환!

싱어송라이터 꽃지수는 이번 앨범 [개미에게 배짱이가]부터 'ZISU'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ZISU는 19살때 부터 각종 방송물, 애니메이션, 뮤지컬, 광고음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직접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가수로 참여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이다. 주로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 작업해오던 ZISU는 최근 피다뮤직(PIDA MUSIC)에 합류하여 이번 새 앨범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앨범은 싱어송라이터 ZISU가 18살때 썼던 노래로, 작년 6월에 발매한 [Feeling]과 같은 시기에 작

사, 작곡한 곡이다. [개미에게 베프이가]는 유명한 이솝 우화 '개미와 베프이'의 스토리에 반전을 더하여 재치 있는 가사와 신나는 리듬으로 표현한 곡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삭막한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보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음악계의 프로악뱀러 작곡가 박보민 '울희액이']

드디어 나온 박보민 앨범!

최성우는 제5회 MBC 대학가요제에 혼성듀엣 '오누이'로 자작곡 '님의 기도'로 은상을 수상한 뒤 조각 같은 외모로 단숨에 여성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뮤지션이다. 무려 28년 만의 복귀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지만 그는 아직 놀라운 동안 외모를 지키고 있다. 음악외적인 부분이지만 타고난 그루밍의 결과물 덕분인지 분간이 어렵다.

음악은 더 놀랍다.

모름지기 대중음악은 연주음악의 발전에 비례한다. 이른바 K POP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른바 주류음악에서 마케팅 목적에 종속된 음악외적인 부분이 더 관심을 받고 더 크게 다루어져온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는 드물다. 한 발 더 들어가 본질적 차원에 있어 한국 대중음악의 진보여부를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있다. 이것이 한국대중가요의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최성우의 컴백은 음악적인 충실도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을만한 하다.



[싱어송라이터 '헤화동소년'의 여섯번째 다이어리, 'Butterfly']

가뒤퍼린 것은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된다

싱어송라이터 헤화동소년이 오는 8월29일 12시 정오에 새 앨범 'Butterfly'를 발매한다.

'헤화동소년 다이어리 vol.6'는 매달 달력을 넘기듯,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발매하는 헤화동소년의프로젝트 중 여섯 번째 작품이다.

이번 싱글 앨범에 담긴 신곡 'Butterfly'는 밴드사운드에 스트링을 입혀 표현하였고, 보다 쉬운 멜로디로 대중적인 느낌을 더했다.

“서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있을 수 없다”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아름다운 나비를 가두어 두려 하면,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 라는 은유적 표현의 가사에, 헤화동소년만의 감성적인 멜로디를 더해 곡을 완성시켰다.

헤화동소년은 올 해 3월부터 '헤화동소년 다이어리'라는 타이틀로 매달 프로젝트 앨범을 선보이는 중이다. 8월 신곡 'Butterfly'에 이어 9월 발매 예정인 일곱 번째 다이어리에서는, 마치 한입 베어 물은 케익처럼, 욕심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모습만 남긴 채 헤어진 연인의 모습을 그린 '케익'이라는 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OST Part.1 프듀2 출신 '레인즈(RAINZ)' 데뷔 'Let It Go, Let It Be']

※ 가창자 '레인즈(Rainz)' 확정! '프로듀서101시즌2' 출신 7명의 귀염둥이들 (김성리, 변현민, 서성혁, 이기원, 장대현, 주원탁, 홍은기) '병원선 OST'로 첫 데뷔!!!

(극본 윤선주)

인프라가 부족한 섬에서 배를 타고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섬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심을 처방할 수 있는 진짜 의사로 성장해나가는 세대 공감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8월 30일 10시 첫방송된다.

2년만에 안방극장을 찾아오는 믿고 보는 배우 '하지원'이 주인공으로 의사로 등장! 하지원은 '병원선'의 송은재를 선택한 이유로 "병원선의 시놉이 주는 감동의 힘"을 꼽았다. 삶과 죽음의 치열한 이야기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성장하는 은재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병원선'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믿고 보는 배우 하지원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주요 인물)

'병원선'에서 각각 눈물 대신 실력을 진 출중한 실력의 외과의사 송은재(하지원),

따뜻한 마음을 지닌 공감능력이 뛰어난 내과 의사 곽현(강민혁),
병원선 유일의 까칠한 한의사 김재걸(이서원),
유쾌한 흡수제 치과 의사 차준영(김인식)

Arranged By Planning / Legal Department

- 본 뉴스 클리핑은 매주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하므로 협회는 본 뉴스 클리핑으로 발생하는 내용상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 클리핑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 클리핑은 월 2 회 E-Mail 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수신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news@riak.or.kr 로 신청 바랍니다.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news@riak.or.kr 로 회신을 주시면 수신거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8 길 10, 7 층(상암동 더팬빌딩) | TEL : 02.3270.5900
| FAX : 02.711.9735 | Planning/Legal Department Team | TEL : 02.3270.5913 | E-MAIL : news@riak.or.kr

Copyright © RIAK All Rights Reserved